

“오소리 동굴” 이야기

- 1 **지자체명** 랴오닝성 환경보전 자원봉사협회, 랴오닝성 실험중학교
- 2 **발표자** 슈이 샤오(徐 瀟)
- 3 **활동명** “오소리 동굴” 이야기
- 4 **활동 기간** 2006년 2월~현재
- 5 **활동 장소** 랴오닝성 심양시 파쿠현 “오소리 동굴” 댐
- 6 **활동 참가인원** 19명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2005년 가을에 저는 랴오닝성 환경보전 자원봉사협회에서 “오소리 동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그 동굴이 신기한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소리 동굴” 댐은 심양시 북서부 150km의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쿠현 슈세이허츠(法庫縣秀水河子町)마을 부근에 있습니다. 그곳은 푸른 하늘과 맑고 깨끗한 물, 수초와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섭금류(백로, 학 등)와 물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은 랴오닝성 환경보전 자원봉사협회의 조하이산(周海翔)부회장님께서 부터 였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곳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방학(東方鶴:천연기념물)과 검은 깃털을 가진 학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범고 오소리 동굴 댐”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니 아주 무서운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범고 오소리 동굴 댐에서 희귀한 물새가 발견된 후로부터 일부 불법포획자들이 댐에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은 매년 물새들의 산란기에 댐 부근의 주민들이 그 알을 훔쳐서 팔거나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랴오닝성 환경보전자원봉사협회는 2005년 10월부터 「학 및 다른 물새들의 중요 도래지인 오소리 동굴 댐 습지의 보호」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협회 회원분들과 함께 댐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한 후, 현지 주민에게 조류에 관한 지식을 알리고 선전 전단지 2만장 정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70종류 이상이나 되는 새 3만마리에 대한 관찰도 했습니다. 조사중에는 희귀한 흰 머리딱새와 백조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아름다운 새들을 관찰하면서 새의 종류, 수량 및 특징 등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한 활동과 선전이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켜 세계자연기금회 회원 여러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또 몇가지 제안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새가 건너 오는 시기에는 포획을 금지할 것, 황지를 개척해 경지로 만드는 것을 중단할 것, 현지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오소리 동굴”은 반드시 물새들의 낙원이 될 것이며, 또 물새들이 인류와 공생할 수 있는 날도 꼭 올것 이라고 믿습니다.